



지난 9월1일 개막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31일까지)가 반환점을 돌았다. 30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은 어린이 관람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다양한 연령대 관람객들, 즐거운 예술체험

“와, 고래다. 그런데 뭐로 만들었지?” 김상연 작가의 작품 ‘우주를 유영하는 고래’를 본 아이들이 탄성을 지른다. 빨레 세제 용기 등 폐품을 이용해 만든 작품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사진촬영을 하며 즐거워한다. 노진아 작가가 자신의 엄마를 모델링해 얼굴을 제작하고, 기계를 통해 인간의 표정을 학습하게 한 작품 ‘나의 기계엄마’ 앞에서는 발길을 뚝 모른다. ‘진짜 사람 얼굴’같은 작품이 관람객을 따라한다는 안내자의 말을 듣고선 여러가지 표정을 지어보이며 서로 집중하느라 바쁘다.

30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은 동산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의 즐거운 예술체험 현장이었다.

지난 9월 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개막한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1일 반환점을 돌았다.

30일까지 전시장을 다녀간 관람객은 모두 1만 9000여명. 코로나 19로 예년처럼 관람객이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은 차분히 전시관을 둘러보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다. 또 SNS 등에 작품과 함께 한 다양한 인증샷을 올리며 자신만의 디자인비엔날레를 즐기는 모습들이다.

특히 1일부터는 디자인비엔날레 공식홈페이지에 5개 전시관·전시 콘텐츠를 재현한 온라인 전시관도 공식 오픈, 집에서 편안히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Design)’과 ‘레볼루션(Revolution)’의 합성어인 ‘디-레볼루션’을 주제로 열고 있는 이번 전시에는 폴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50여 개 국가 421명의 작가 및 국내외 기업에서 총 1039종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부터 AI, 메타버스 등 최첨단의 기술이 디자인과 어떻게 조우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지 펼쳐보이고 있다. 또 환경과 생태 문제, 기계와 인간의 관계 등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예술가들의 해답을 만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체험 프로그램이 많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등나무꽃에서 모터보트를 얻은 4000여개의 종이 꽃송이들을 정교한 레이저 커팅으로 가공한 후, 다시 손으로 접고 엮어 완성한 ‘From color to



1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홈페이지에 문을 연 온라인전시관에서는 5개 전시관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한달 1만9000여명 관람객 다녀가 오늘부터 온라인 전시장 오픈 보물찾기·VR 방명록 이벤트

eternity’는 단연 인기 최고다. 또 새소리와 물소리가 들리는 ‘식물극장’, 더이상 불을 밝히지 않는 폐선의 집어등을 조합해 작품으로 구현한 부지현 작가의 ‘Luminous’ 등도 인기가 높다.

알렉산드로 멘디니의 ‘푸르스트 의자’ 등 다양한 의자 컬렉션을 만나는 색션은 관람객들이 흥미로워하는 공간 중 하나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Mother of Pear Collection’ 등 4개의 작품은 직접 앉아볼 수도 있어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도 많다.

20여개 대형 테이블마다 각각의 주제로 작품이 전시된 2전시관은 관람객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으로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는’ 색션이다. ‘레게음악의 왕’ 밥 말리의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흥미로운 공간으로 헤드폰을 끼고 직접 음악을 들어볼 수 있다.

‘Peace of mind’는 국내 최초 AI 작곡가 ‘이

봄’ (광주과학기술원 안창욱 교수 연구팀)이 관람객이 입력한 몇개의 코드로 피아노 음악을 들려준다. ‘조수미의 홀로그램 씨어터’에서는 ‘나가거든’ 등 히트곡을 부르는 조수미의 ‘생생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새롭게 선보인 온라인 전시관에는 3D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주제관 등 5개 전시관 및 전시 콘텐츠를 현장감 있게 구현했다. 관람객들은 360° VR뷰를 통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완벽하게 재현된 전시품들을 만나게 된다.

VR공간에 영상해설 콘텐츠를 결합한 방문자 맞춤형 도슨트 기능도 제공한다. 각 전시관 입장 페이지에 영상 도슨트를 배치해 전시관의 주제를 설명하고, 작품의 상세내용 보기 태그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한 자세한 작품 설명을 볼 수 있다.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보물찾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시관 VR과 연동된 온라인 방명록을 통해 관람객들이 방문을 기념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했다.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는 오프라인 전시는 월요일 휴관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사전예약, 현장발권 가능. 티켓가격 일반 1만3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4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우리가족, 이웃가족

김용우 전, 15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26일부터 서울 오엔 전시

조각가 김용우 작가는 오랫동안 테라코타 작업을 해왔다. 흙의 철성분 함유 정도와 가마불의 온도에 따라 다양한 색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테라코타는 붉은 빛의 온화한 느낌과 따뜻한 감성이 풍겨나오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가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 더 깊이 어울리는 재료로 보인다. 작가는 “붉은빛의 색감이 가족간의 끈끈한 모습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한다.

조각가 김용우 작가 17번째 개인전이 1일부터 15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광주 광산구 소촌로85번길 14-9)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9일까지는 서울 갤러리 오엔에서도 펼쳐질 예정이다. 전시에는 테라코타 작품 26점과 석조작품 6점 등 모두 32점이 나왔다.

작품들은 모두 가족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서로에게 상처받고 지치기 쉬운 요즘, 힘들 때 위로가 돼주고, 기쁠 때 환호해주는 ‘식구’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다. 작가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족의 의미도 퇴색해가는 것 같아 더 열심히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김 작가는 자신의 가족과 이웃 가족의 모습을 다채롭게 담아냈다.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반려견들도 함께다. 그의 작품 속 가족들의 모습은 행복하고 평화롭다. 부부는 서로 어깨를 감싸고, 아이는 아빠의 목마를 땀.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은 아이, 아빠의 무릎에 앉은 아이, 그리고 가족들의 발 밑에 자리하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에 미소가 지어진다. 인물과 함께 등장하는 꽃도 눈길을 붙잡는다.

조각 작품의 인물은 세세한 묘사 대신 단순화시킨 게 특징이다. 눈코입도 없다. 대신 간략화시



‘울 식구와 바둑이’

킨 선과 면 만으로 조형성을 만들어내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엄마, 아빠, 아이 각각의 인물은 ‘함께’ 어우러지면서 완성된 조형성을 만들어낸다.

이번 전시에는 대리석 작품도 함께 나왔다. 역시 가족을 테마로 하고 있지만 재료가 갖고 있는 개성으로 또 다른 느낌의 가족상을 만날 수 있다.

김 작가는 호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장성에서 테라코타환경연구소를 운영중이다. 광주시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광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위원, 전남도건축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버스킹 in 광주’ 오늘 유튜브...정동하·웁스 등 참여

광주관광재단(대표이사 남성숙, 이하 재단)이 1일 오후 7시 재단 유튜브 채널(광주관광TV)을 통해 ‘버스킹 in 광주’ 공연을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한다.

‘버스킹 in 광주’는 ‘예술 여행 대표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해 광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감성 뮤직 토크쇼이다. 인기 가수 정동하, 웁스, 홍경민이 참여하는 이번 공연은 정동하의 ‘생각이나’로 첫 무대를 열고 홍경민의 ‘내 남은 사랑을 위해’, 웁스의 ‘회장을 고치고’ 등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는 곡들과 출연진의 토크쇼가 결합된 형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들의 전라도 한정식 먹방과 공연 비하인드 영상 등이 추가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재단은 라이브 방송 도중 실시간 퀴즈 진행 등을 통해 친필 사인CD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웁스

정동하

한편 재단은 2021년도를 비엔날레 여행의 해로 지정하고,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비엔날레 특별노선 시티투어버스’, ‘예술여행 팝업스토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611-36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보청기대상 상가제품부문 [5년 연속] 수상 [학술기술상]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영향력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인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